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서

2007. 12.



목 차

I. 조사 개요	1
① 조사 목적	2
② 조사 설계	2
③ 조사 내용	3
④ 응답자 특성	4
II. 조사 결과 요약	5
III. 조사 결과 분석	16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17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17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19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21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22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22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24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26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28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28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29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31

첨부 1. 기초통계표

첨부 2. 조사설문지



Contents

I 전체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1. 조사 목적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그리고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추진됨.

2. 조사 설계

세부 조사 설계	
① 조사대상	●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②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③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Survey)
④ 표본추출	● 전국 만20세이상 인구의 지역, 성, 연령별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Proportional Quota Sampling)
⑤ 응답자 선정	● 인명부 전화번호 DB를 이용한 체계적 추출
⑥ 유효표본	● 총 1,000명 ● 95%에서 최대 $\pm 3.1\%$
⑦ 조사시점	● 2007년 11월 26일 - 12월 25일
⑧ 조사기관	● (주)월드리서치

3. 조사 내용

평가 항목	'01년	'06년	'07년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정도	○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
○ 마약류 사용 경험	○	○	○
○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
○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
○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			○

4.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	남자	493	49.3
	여자	507	50.7
연령	20대	215	21.5
	30대	236	23.6
	40대	228	22.8
	50대이상	321	32.1
지역	서울	218	21.8
	부산/경남	165	16.5
	대구/경북	109	10.9
	인천/경기	275	27.5
	광주/전라	103	10.3
	대전/충청	98	9.8
	강원/제주	32	3.2
도식규모	대도시	479	47.9
	중소도시	424	42.4
	군지역	97	9.7
학력	중졸이하	180	18.0
	고졸	355	35.5
	대재이상	465	46.5
직업	화이트칼라	177	17.7
	블루칼라	87	8.7
	자영업	172	17.2
	주부	356	35.6
	학생	107	10.7
	무직/기타	101	10.1
소득	100만원이하	114	11.4
	101-200만원	141	14.1
	201-300만원	248	24.8
	301-400만원	187	18.7
	401만원이상	173	17.3
	무응답	137	13.7
장기해외체류경험	있음	61	6.1
	없음	939	93.9



Contents

Ⅱ 조사 결과 요약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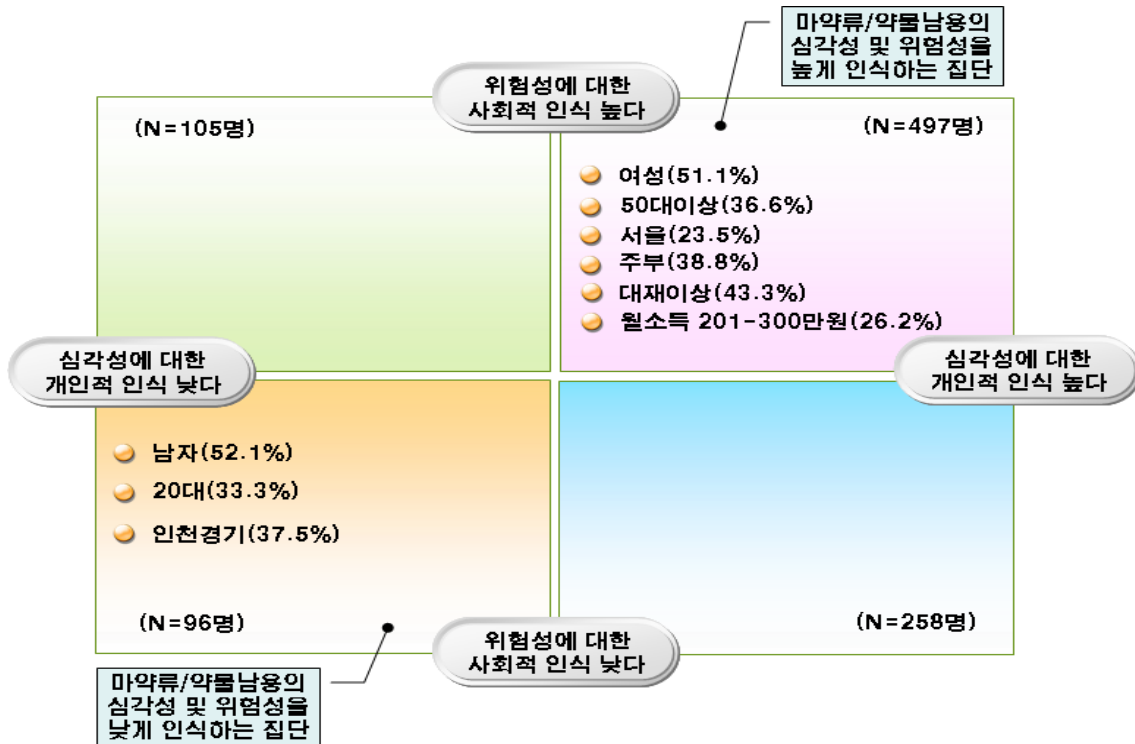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국민의 60.9%는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5.7%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지난 2006년도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증가(▲3.0%p)한 것으로 평가됨.
 - 2006년 57.9% → 2007년 60.9%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01년(%)	2006년(%)	2007년(%)	Gap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11.5	13.7	18.5	▲3.0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43.4	44.2	42.4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42.3	37.2	35.0	▼5.2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3	3.7	0.7	
무응답	0.5	1.2	3.4	

-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상(78.4%)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0.6%로 나타남.
- 그러나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0.9%p)인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77.5% → 2007년 78.4%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2001년(%)	2006년(%)	2007년(%)	Gap
매우 심각하다	25.2	26.1	25.3	▲0.9
다소 심각하다	50.7	51.4	53.1	
별로 심각하지 않다	21.4	20.1	19.5	▼1.1
전혀 심각하지 않다	1.5	1.6	1.1	
무응답	1.2	0.8	1.0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N=497)은 여성(51.1%), 50대이상(36.6%), 서울(23.5%), 주부(38.8%), 대재이상(43.3%)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N=96)은 남성(52.1%), 20대(33.3%), 인천/경기(37.5%) 지역 거주자로 나타남.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 인지경로

- 일반국민 대다수(91.4%)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여성(93.8%)이나 학력 및 소득이 낮을수록 ‘방송매체’의 존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

-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실생활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살 빼는 약’(15.56%)이 1순위로 응답됨. 그 다음으로 ‘피로 회복제’(13.4%), ‘머리가 맑아지는 약/근육을 키워주는 약’(12.2%), ‘술 깨는 약’(10.7%)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 술 깨는 약: ▲1.1%p('06년 9.6% → '07년 10.7%)
 - 머리 맑아지는 약/근육 키우는 약: ▲0.9%p('06년 11.3% → '07년 12.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률(%)	2001년	2006년	2007년	Gap
가. ‘피로 회복제’	8.9	12.8	13.4	▲0.6
나. ‘살 빼는 약’	2.0	15.1	15.6	▲0.5
다.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9	9.6	10.7	▲1.1
라.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주는 약’	1.1	11.3	12.2	▲0.9

- 2007년 ‘피로 회복제’의 실생활 사용경험은 남성(13.4%), 20대(17.2%), 대구/경북(23.9%), 대재이상(17.0%), 화이트칼라(28.2%)에서 높게 나타남.
- ‘살 빼는 약’은 여성(21.7%), 20대(19.1%), 서울(18.8%), 대재이상(16.6%), 주부(18.5%), 고소득층일수록 사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 ‘술 깨는 약’의 사용경험률은 남성(15.4%), 20대(14.9%), 대구/경북(18.3%), 대재이상(14.2%), 화이트칼라(23.7%)에서 높게 나타남.
-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주는 약’은 남성(21.1%), 20대(20.0%), 인천/경기(14.2%), 대재이상(17.4%), 화이트칼라(32.2%), 학생(28.0%)에서 사용경험이 높았음.

- 연령대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률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약물에 대해 20대에서의 경험률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	피로 회복제 사용경험률(%)				살 빼는 약 사용경험률(%)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대	12.6	9.0	17.2	▲8.2	2.7	10.7	19.1	▲8.4
30대	8.0	15.1	14.0	1.1	3.1	18.6	13.6	▽5.5
40대	8.0	15.6	15.4	0.2	1.5	16.6	18.0	1.4
50대이상	6.9	11.8	9.0	▽2.8	0.7	14.6	13.1	1.5

연령	술 깨는 약 사용경험률(%)				머리 맑게 하는 약 사용경험률(%)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대	1.1	9.0	14.9	▲5.9	1.1	19.7	20.0	0.3
30대	3.8	15.5	12.3	▽3.2	1.9	12.0	15.7	▲3.7
40대	1.0	7.6	10.5	2.9	1.0	8.5	10.1	1.6
50대이상	1.4	6.3	6.9	0.6	0.4	5.6	5.9	0.3

※ Gap(%): (2007년 사용경험률) - (2006년 사용경험률)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물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야 한다’(34.2%)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남.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	34.2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32.3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 출입국 통제	24.4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에 맡김	8.6

(단위: %)
- 특히 여성이나 50대이상, 인천/경기 지역, 주부 및 블루칼라 종사자의 경우 ‘약물예방교육의 학교 정규교과과정 채택’ 방안에 대한 공감률이 높게 나타남.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응답 내용	%
① 이웃과 함께 관심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59.8
②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는 않겠다	19.9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	17.6
④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	1.9
무응답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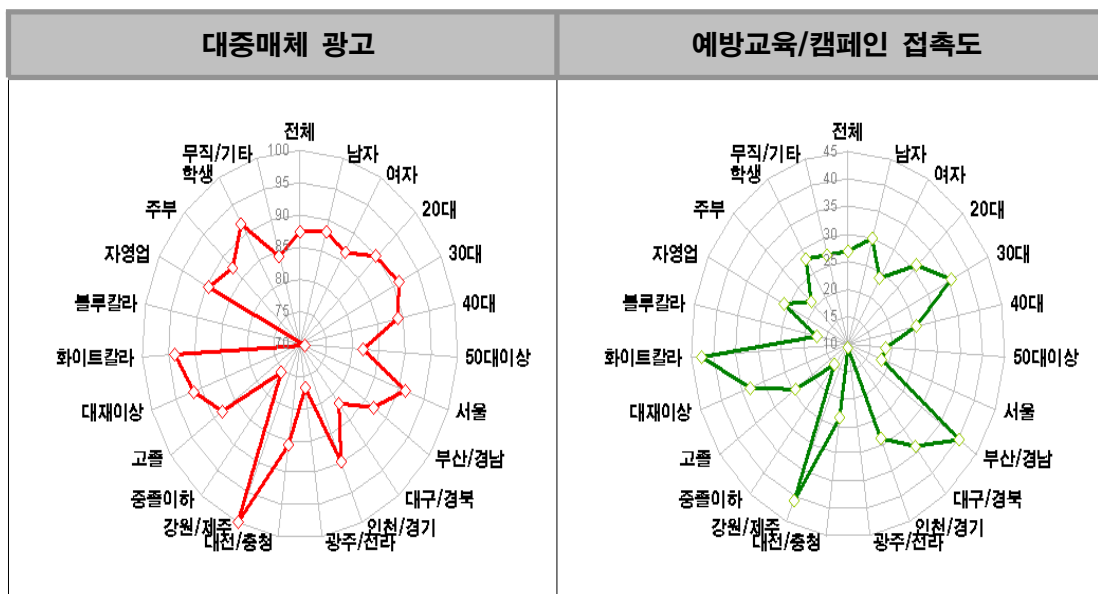
-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이상(59.8%)은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제시함.
- 반면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소극적 태도(② ‘어울리지는 않겠다’ +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를 나타낸 비율은 37.5%이며, 적극적 반대(④ ‘이주 요구’)는 1.9%로 나타남.
- 특히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가.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87.4
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26.7
다.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3.7
라.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3.5
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1.3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의 접촉도가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91.4%)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 반면,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캠페인’ 접촉도는 26.7%,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접촉도 3.7%,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경험’ 3.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경험’은 1.3%로 나타남.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일반국민의 65.6%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을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그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16.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4.0%), ‘마약류 연구사업’(3.7%) 순으로 응답함.



-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구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마약류 연구사업
성	남성	63.3	18.1	14.4	4.1
	여성	67.9	14.6	13.6	3.4
연령	20대	54.0	23.7	18.6	3.3
	30대	65.3	17.8	14.0	3.0
	40대	71.1	12.7	12.7	3.1
	50대이상	69.8	12.8	11.8	5.0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응답 내용	%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36.3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31.6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21.5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9.9
가정에서 교육	0.3
무응답	0.4

-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류 사용/유통/제조업자의 처벌 강화’(21.5%)보다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3%)을 1순위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특히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을 1순위로 지적한 응답자는 50대이상(44.5%) 및 주부(40.2%)에서 높게 나타남.
- 마약류/약물남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집단(N=784)과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N=206) 모두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각각 36.9, 34.5%)을 1순위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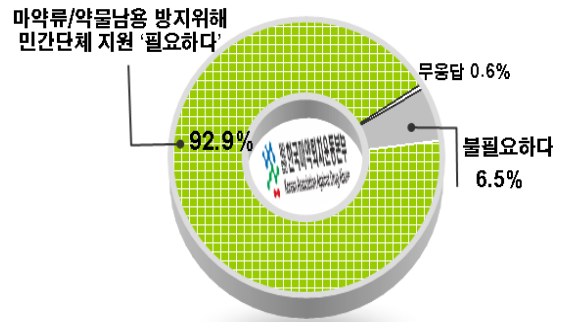
(단위:%)

집단 구분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마약류 제조/유통/사용자의 처벌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마약류/약물남용 심각성 인식 집단 (N=784)	36.9↑	31.1	21.3	9.9
마약류/약물남용 심각성 비인식 집단 (N=206)	34.5↑	33.0	22.8	9.2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일반국민 대다수(92.9%)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매우 필요하다’ : 28.4%
- ‘대체로 필요하다’ : 64.5%



-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의 응답내용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확산 방지 방안’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등 교육과 홍보, 사회적 지원을 통해 마약류 확산 방지를 강조하는 응답자일수록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단위:%)

마약류 확산 방지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92.3	6.9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u>94.6</u>	4.7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u>94.9</u>	5.1
마약류 제조/유통/사용자의 처벌 강화	90.2	9.3

6 총 평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10명 중 6명(60.9%)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자각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5.7%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2006년도 결과(57.9%)와 비교해 볼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증가(▲3.0%p)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7명 이상(78.4%)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77.5%)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도는 미비한 증가(▲0.9%p)를 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일반국민 대다수(91.4%)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N=96)은 남자, 20대, 대재이상,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의 특성에 맞는 홍보방안이 요망됨.

▣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마약류 및 남용약물과 관련하여 ‘살 빼는 약’(15.6%)의 사용경험율이 1순위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 ‘피로 회복제’(13.4%),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주는 약’(12.2%), ‘술 깨는 약’(10.7%)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모든 약물에 대해서 미비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 그러나, 연령대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 증가를 살펴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우는 약’을 제외한 모든 약물에 대해 20대 연령층의 사용 경험률 증가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물예방교육의 학교 정규교과 과정 채택’(34.2%)과 ‘조기유학생/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32.3%)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59.8%)은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제시함. 반면, 소극적 태도(② ‘어울리지 않겠다’ +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37.5%이며, 적극적 반대(④ ‘이주 요구’)는 1.9%로 나타남.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자각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은 마약류 및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경험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법적 제재의 균형감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요망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의 접촉도가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91.4%)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 반면,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캠페인’ 접촉도는 26.7%,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3.7%,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경험’ 3.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경험’은 1.3%로 각각 나타남.
- 일반국민의 65.6%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방향으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16.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4.0%), ‘마약류 연구사업’(3.7%) 순으로 응답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경로가 주로 TV 등 대중매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홍보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향후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 맞춰 홍보활동 집행매체의 다변화가 요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3%)을 제시하여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일반국민 대다수(92.9%)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마약류 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여론확산 전략이 요망됨.